

네이버 ‘정보 공간’ 맘껏 활용하세요



빅데이터 ‘데이터랩’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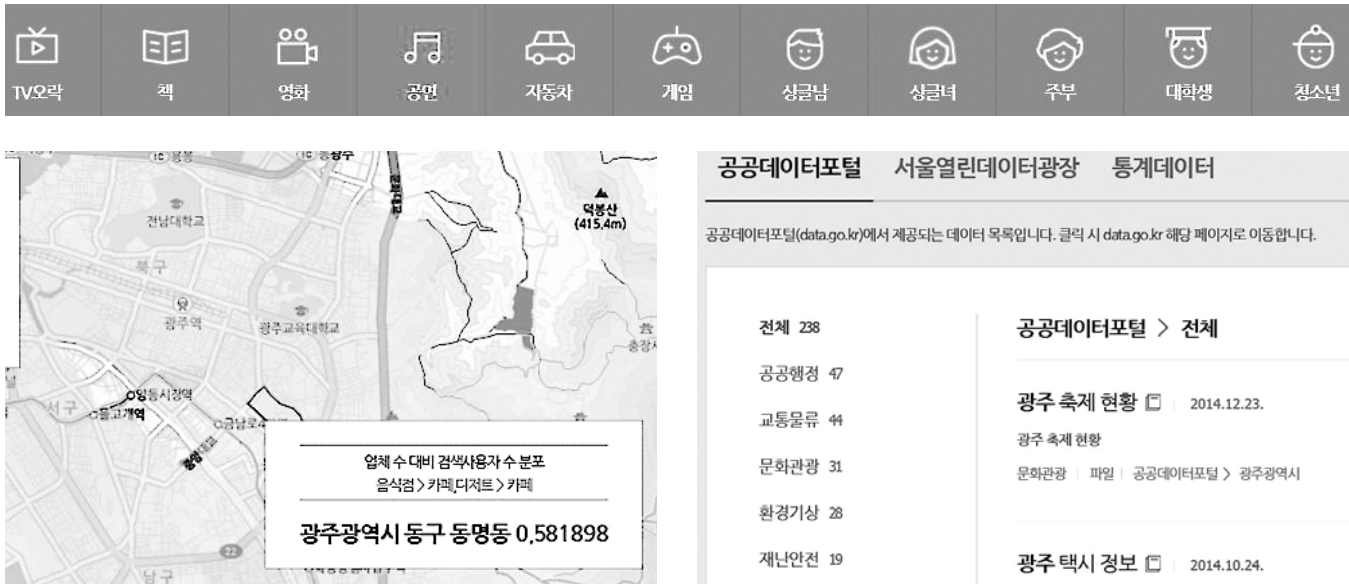
지역 정보부터 공식 통계까지

데이터 분석 활용 창업 등 도움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S사는 재고 관리와 온라인 판매 시기 등을 확정하는 데 네이버(naver)의 데이터 랩(datalab) 베타 버전을 활용하고 있다. 올 겨울에는 니트 의류의 온라인 판매를 기존보다 한 달 앞당겼다. 네이버 이용자들이 포털에서 ‘니트’를 검색하는 시기가 다른 겨울철 의류에 비해 이르고, 판매기간 폭도 넓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사가 축적한 데이터를 일반 이용자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었다. 자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 자료 수집이 필요한 대학생 등 누구나 네이버 ‘데이터랩’이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지난 14일부터 자사를 포함한 등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포털인 ‘데이터랩’(datalab.naver.com) 베타 버전을 무료로 제공한다.



네이버 지역서비스에 등록된 업체 정보와 모바일검색 사용자 수를 대입해 산출한 ‘업종별 네이버검색 사용자 수 분포도’(왼쪽)와 정부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

네이버의 ‘검색어’ 추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자료도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네이버 데이터 랩은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개인 이용자가 보유한 데이터와 융합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융합 분석’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역 통계’ ▲최근 10년간 네이버 인기 검색어 트렌드를 보여주는 ‘검색어로 알아보는 대한민국’으로 구성됐다.

또 통계청과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이 제공하는 13만건 이상의 공공데이터도 일목요연하게 정리, 검색어 입력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데이터 융합 분석’은 개별 이용자가 가진 데이터를 네이버 검색데이터에 융합해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거래 내역 등을 입력해 네이버의 검색어 데이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역 통계’에서는 각 시·군·구별로 각 업종의 분포도를 작성, 한눈에 볼 수 있다. 가령 특정지역에 카페나 치킨 등 창업을 계획할 경우 경쟁업체의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검색어로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검색어로 알아보는 대한민국’도 눈길을 끈다. ‘싱글남’, ‘싱글녀’, ‘청소년’, ‘주부’ 등 특정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연령과 특성에 맞는 소비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영화’, ‘책’, ‘게임’ 등 인기검색어도 확인 가능하다.

네이버 관계자는 “데이터 랩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게임 ‘루나:달빛도적단’ 25일 프리오픈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인터세이브(대표 이갑형)의 ‘루나 : 달빛도적단’의 프리오픈 일정이 확정됐다.

인터세이브는 캐주얼 MMORPG ‘루나 : 달빛도적단’의 프리오픈을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리오픈은 iMBC의 플랫폼 ‘웹씨’를 통해 진행되며, 이 기간 오후 3시부터 새벽 0시까지 서버를 오픈한다. 앞서 진행 중인 사전예약 이벤트는 24일까지다.

사전예약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정식

서비스부터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기분 좋은 호루라기’가 제공되고, 200명을 추첨해 iMB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캐시 10,000원권’을 증정한다.

이갑형 대표는 “오랜 기간 준비한 ‘루나 : 달빛도적단’의 프리오픈 일정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정식서비스를 앞두고 진행되는 프리오픈을 통해 콘텐츠와 서비스환경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루나 : 달빛도적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luna.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전담강사 모집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2016년 열린미디어교실’ 전담강사를 모집한다.

기초과정 모집분야는 ‘영상제작기초’, ‘사진촬영기초’, ‘라디오제작기초’ 등이다. 영상제작 중급과정은 ‘영상제작이카데미’, ‘미디어읽기와 영상기획구성’, ‘영상, 라디오로 만드는 가족뉴스’, ‘미디어골목 탐험대’다.

‘열린미디어교실’은 계절별 학기제로 총 4분기에 걸쳐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강사들은 사전부터 영상, 라디오, 미디어비평까지 미디어분야 전문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대상이 청소년부터 일반성인에 이르는 만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강사들을 중심으로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서류접수 마감은 오는 2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2-650-0336)나 홈페이지(www.comc-gj.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기용기자 pboxer@

최악 스팸은 페이스북 초청 빙자 스미싱

2년 연속... 지난해 3만건 신고

지난 한해 최악의 스팸번호는 페이스북 초청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로 나타났다.

KT CS는 자사의 스팸 차단앱 ‘후후’의 작년 스팸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페이스북 초청을 빙자한 스미싱문자 ‘013-3366-56 * *’이 3만3213건이 신고돼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신고건수 1위에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스팸전화의 목적으로는 ‘대출권유’가 전체의 37.8%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휴대폰 판매(16.1%), 텔레마케팅(13.9%), 불법게임·도박 광고(7.6%), 성인·유흥업소 광고(7.3%)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처음으로 신고된 전화번호가 57.5%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처음 신고된 번호 17.5%, 2013년 25.0%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치다.

스팸차단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개설해

■ 스팸전화 목적

대출권유	37.8
휴대폰 판매	16.1
텔레마케팅	13.9
불법게임·도박 광고	7.6
성인·유흥업소 광고	7.3

■ 스팸번호 유형

070	유선전화	010
33.9	32.5	22.9

〈자료:KT CS〉

스팸전화나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풀이된다.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전화번호 유형은 ‘070’(653만2442건)으로 전체의 33.9% 수준이었으며, 유선전화(32.5%)와 ‘010’(22.9%)이 뒤를 이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아이폰용 웹툰 서비스

KT가 이동통신사 웹툰서비스 최초로 안드로이드가 아닌, 아이폰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올레마켓웹툰’을 출시했다.

KT가 이동통신사 웹툰서비스 최초로 안드로이드가 아닌, 아이폰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올레마켓웹툰’을 출시했다. <KT 제공>

회사 사정상 매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

수기동, 사무실전용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매매-2억(조정가)

월산동,광전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2013년도 중공
- 전망좋음, 베란다있음, 관리비저렴
- 현재 보증금 55백만원에 월40만원임대중
- 매매-1억1천만원(웅 6천5백만원포함)

보성,복내면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 87외5필지
- 13만평 중 5분의 1지분(26,286평)
- 전기시설완비, 임도 개설되어 있음
- 장기투자 최고물건
- 매매-1억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매매-1억원 6천만원(조정가)

돈 되는, 근린상가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만호초등학교 건너편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40만원 임대 가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